

2015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5.10.29(목) 15:00~16:30

■ 주요 의견 내용

▲ 보도의 가치 고려하고 심층성·신뢰성 등 제고해야

- 보도전문채널이 갖고 있는 장점과 한계가 있음. 24시간 뉴스전문채널이다 보니 다른 장르의 편성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타 채널과 어떤 차별성을 갖아야 할지 뉴스가치에 대해 내부적인 고민이 필요함(강대인 위원장)
- 27일 '뉴스현장' '도도맘' 김미나, 강용석 불륜설 해명... "내 스타일 아냐" 내용은 불륜설에 대해 특별한 내용도 없을 뿐 만 아니라 방송에서 보도 할 만 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임(김용주 위원)
- 최근 가장 핫 이슈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민들까지 찬성 또는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까지 열리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음. 연합뉴스TV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여·야가 주장하는 단순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 뿐 아니라,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분열된 국론을 모으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교과서 내용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 했으면 함(김용주 위원)
- 14일, 15일 '뉴스워치', '출발640' 블랙 프라이데이관련 내용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주도로 이뤄지고 전통시장은 제외된 채 대기업위주로 소비 진작을 한다는 내용이었음. 건전한 상거래 질서, 업체의 자발적 노력, 대형마트의 수수료마진률, 입점매장과 납품업체 등 총괄적인 상거래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례도 들어주면 좋을 것(김연화 부위원장)
- 9월 28일 '뉴스18' '한국식 국민공천제' 실행되나... 金-文 합의 파장은 에서 후속 기사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무엇이며, 또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의 기사가 이어졌더라면 기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임(성낙용 위원)
- 8일 '뉴스포커스' '도심 속 작은 댐' 빗물 저장소, 가뭄 해법으로' 기사에서 빗물 활용 방안으로 '빗물 저금통'을 소개해 주어 신선했지만 낡은 수도관을 제때 교체하지 못해 누수 되는 수도물이 얼마인지? 또 물 절약 사례로 인천공항은 중수도를 화장실 세척수와 조경수로 사용하고 있고 속초시는 설악산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지하수를 지하수 댐을 만들어 가정에 공급하고 있고 양변기 물탱크에 물병이나 벽돌을 넣어 물을 절약하는 방법 등의 국내외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임(성낙용 위원)
- 29일 은행권 계좌이동 실행 관련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시청자들에게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절차 등 구체적으로 보도

하면 좋을 것(이용우 위원)

- 7일 中·日도 받는 노벨의학상... 한국만 못 받는 이유는 내용에서 해마다 10월 이면 되풀이되는 내용으로 정부, 국회 등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올해도 많은 보도가 있었음. 한국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국제 과학기술 연구 동향 및 선진국의 기초연구 환경 분석 등을 통해 정부, 국회, 과학기술계가 보다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보도가 필요함(이헌규 위원)
- 20일 뉴스현장14 내용 중에 엘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국에서는 평균소득수준과 금융자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은 2억9천만 원 정도라고 보도했는데 지난 9월 15일 '라이브투데이'에서는 서울아파트전세 절반이 3억 5천만 원을 넘었고 서울에서는 3억 5천만 원을 넘는 아파트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음. 보고서의 인용보도시 자체적으로 평가검토해서 보도하는 시스템이 필요해보임. 뉴스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김연화 부위원장)
- 18일 '기업비사'에서 기업인 현대회장을 미화하거나 25일 동아제약 관련 이야기 전개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프로그램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함(최현철 위원)
- 미국 관련 뉴스가 뉴스 가치에 비해 많다고 생각함. 미국 대통령 선거가 1년 넘게 남아 있고, 주요 당(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미국 대통령 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뉴스의 양이 많은 것은 사건의 시의성 측면에서 볼 때 그리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뉴스를 어느 정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함(최현철 위원)
- 9월 25일 추석연휴 보도에서 차례상에 올리는 고기 고르는 법 기사, 제사를 방해하는 것도 범죄행위라는 기사는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반복되어 매우 지루했음. 추석 연휴 보도진이 새로운 뉴스를 취재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뉴스가 하루 종일 반복되는 상황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음(양승찬 위원)

▲ 부적합 표현 및 자막, 화면구성 개선필요

- 한일 정상회담 내용에서 다음달 2일에 개최한다고 표현했는데 자칫 시청자입장에서 다음 달이라고 해서 멀게 느껴질 수 있음. 11월 2일로 표현한다면 자연스러울 것.(강대인 위원장)
- 26일 금감원의 대기업 좀비기업 관련 내용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이자보상비율만으로 좀비기업으로 분류하고 구조조정대상 요청한다는 내용은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표현한 것이겠지만 근거가 되는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좀비라는 명칭도 적절한지 어감이 안 좋은 단어였음 편향되고 감정적인 단어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이용우 위원)
- 뉴스 헤드라인의 부적절한 단어 사용 및 오자에 주의해야함. 27일 17시 '생생네트워킹에서 '기수 줄뺐다·문신 체육대회'...', 24일 세계과학정상회의 폐막내용에서 투자기획을 제공 → 투자기회를 제공으로 표현해야 함(이헌규 위원)

- 1일 '출발640' 친박-비박 '안심번호' 충돌...공천혈투 예고 기사에서 자막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당 대표 모욕 오늘까지만 참겠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오늘의 시점이 9월30일 임을 감안하면 자막으로 9월30일을 함께 표시해 주는 것이 좋을 듯 해 보였음(성낙용 위원)
- 20일 하단 스크롤에 통일부장관 '남북당국교류도 성과 있을 것으로 기대', 정국회의장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절차 문제없어'라고 화면에 보도되었는데 이는 정확히 홍용표 통일부장관, 정의화 국회의장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 '서울시내 공공기관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사라진다'는 '서울시 공공기관 (청사)내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사라진다'로 수정해 보도했어야 함(이용진 위원)
- 실시간 주요 뉴스 자막의 경우 문장을 압축시켜 전달해 문맥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또한 뉴스를 주제를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큰 주제 아래 관련 뉴스를 묶어서 전달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최현철 위원)
- 사건 보도에서 재연화면을 쓰는 것은 보도를 선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도 지침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일 해외 원정 도박 뉴스를 전하면서 조폭에게 검은 돈, 수수료를 전달하는 장면, 5일 택시운전 기사 동거녀 폭행 장면, 7일 '투나잇23' 김밥가게 사업 자금을 대준 장모를 살해 뉴스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사람을 무차별 폭행화면을 영상효과와 함께 제공함(양승찬 위원)
- 가난 딛고 하원의장 된 공화당 '40대 기수' 라이언내용에서 기자의 리포트가 주된 내용이 되다보니 라이언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을 수 없도록 뉴스가 제작된 점은 옥의 티라고 생각됨. 다른 방송국처럼 라이언 의원의 연설장면과 그의 목소리를 삽입함으로써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시청자를 배려하면 좋음(최진영 위원)

▲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심의기준 관련 의견

- 역사교과서 관련 내용에서 정치권의 치열한 홍보전 및 입장대립만이 부각되고 있음. 역사를 판단할 때 어떤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는지 전문가 대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준다면 시청자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근거를 줄 수 있음(강대인 위원장)
- 올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음.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4월 중순까지 집중된다고 하는데 초)세먼지의 심각한 유해성을 감안, 성분 분석 규명 등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함. 현재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발 스모그'는 국제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야기되는 국내 대기질 오염 방지 대책이 국가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심층 보도가 필요함(이현규 위원)
- 1일 사건사고를 정리하여 보도한 9시 '뉴스리뷰'의 경우, 영아살해 사건 보도에

서 살해 방법을 너무 자세히 묘사함. 주부 필로폰 투약 관련 보도에서도 주사기, 백색가루, 용기 등 너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유의해야 함(양승찬 위원)

▲ 출연자, 앵커 복장 등 기타의견

- 20일 '뉴스현장'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실효성 논란내용에서 정부가 발표 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가 출연해 기본계획과 문제점 대해 알기 쉽게 명쾌하게 설명했으나, 이 분야 전문가가 함께 출연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김용주 위원)
- 명절 방송에서 한복을 입는 것은 좋음. 하지만 머리에 한복 장식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지나쳐 보임. 머리에 장식을 한 채 전문가와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은 어색하게 전달됨(양승찬 위원)
- 세계과학정상회의가 대전에서 10.19~23일 개최됐음. 57개 국가에서 과학기술 분야 장관과 석학들이 모인 행사로 국제 학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한 자리였음. 대통령이 참석한 OECD 장관회의 개최식 생중계 등이 보도됨. 연합뉴스TV가 글로벌네트워크에 강점이 있는 만큼 OECD 본부 및 세계 각국의 반응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도가 되었으면 함(이헌규 위원)
- 28일 '뉴스포커스' 가공육 발암물질 관련 내용에서 과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WHO의 발표 내용에 대해 다시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으나 재생오류가 있었음. 시청자에 대한 바른 정보제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업로드의 오류에 주의 해야 함(김연화 부위원장)

▲ 긍정적 평가

- 1일 '출발640' 청계천 복원 10년...도심 명소로 변신 기사에서 도심의 명소로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연간 관리비로 75억 원의 비용이 투입 등 부정적인 면, 그리고 새로운 10년을 위해 생태사업 추진 등 앞으로의 계획 등을 함께 보도해 주어 좋았음(성낙용 위원)
- 11일 저녁 9시 40분 '현장In' 희망의 끈 장발장 은행 관련 보도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면을 보여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기사였음. 이와 같은 성격의 뉴스를 발굴하는데 조금 더 투자했으면 좋겠음(양승찬 위원)
- 18일 성남 글로벌 시니어페스티벌 관련 내용은 고령화 사회에서 많이 나와야 할 뉴스라고 생각함. 우리의 소득수준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고령화 사회가 돼감에 따라 깊이 있는 보도가 필요하며 바람직한 보도였음(이용우 위원)
- 18일 한국 기업환경 4위 일부는 뒷걸음질 관련 내용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균형 있게 보도해서 적절했음(이용우 위원)
- 17일 '미니다큐 오늘'의 '유쾌, 상쾌, 세탁의 달인'편조수웅 선생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전해준 것 같아 아주 감동적이었음.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직접 연구하며 답을 찾아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모습,

7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에서 유쾌하게 일하는 모습 등이 이 시대 세상에 불만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는 방송이었음(이용진 위원)

- 10일 '전통과 혁신의 도시, 경북 김천시', 17일 '산과 물이 어우러진 도시, 강원 화천군'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기존의 여행로드 프로그램과 다르게 매우 서정적이고 감성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음. 특히 먹거리 중심의 지역 소개에 식상한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주어서 좋았음(이용진 위원)
- '기업비사' 33회 동아제약 강신호, 피로회복제를 장수브랜드로! 내용은 대한민국 대표 자양강장 드링크 박카스의 탄생에서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숨겨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내 점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음. 푸드스타일리스의 제품에 대한 맛의 평가, 전 청와대 비서관의 박카스와 동아제약에 대한 정치적 해석, 재벌닷컴 대표의 기업에 대한 분석 등 다채로운 시각에서 회사와 대표상품에 대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제품의 우여곡절 스토리 등이 매우 신선했다고 평가함(최진녕 위원)
- 17일 '미니다큐오늘' 제98화 유쾌 상쾌 세탁의 달인 편에서 40년째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명품 세탁의 1인자 조수웅 씨 부부 얘기는 아주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음. 조수웅 씨는 다른 세탁소에서는 못 빼는 얼룩까지 순식간에 빼는 기술 때문에 전국 방방곳곳, 해외에서까지 세탁물이 오며, 바쁜 중에도 재능 봉사까지 하며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은 굿은일을 하지 않으려는 요즘 세대에게 귀감이 되고 75세인 고령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음(김용주 위원)
- . (끝)